

19세기 카프카스 전쟁과 체르케스 민족의 이주 문제

신 동 혁*

1. 머리말
2. 19세기 중반 체르케스인의 오스만제국으로의 이주 배경, 과정, 성격
3. 맺음말

1. 머리말

가. 문제제기

2007년 7월 러시아 흑해 연안 도시이자 조지아, 압하스와 인접해 있는 소치가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면서 소치 역사를 둘러싸고 러시아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역사전쟁(history war)이 본격화되었다. 소치는 19세기 카프카스¹⁾ 전쟁 말기 체르

*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원

케스인(아디그인)²⁾들의 최후 항거지였기 때문이다. “체르케스 문제” 혹은 “체르케스 제노사이드”라고 표현되는 역사전쟁은 19세기 카프카스 전쟁이 낳은 비극적 유산으로, 소련 해체 이전까지 러시아에서 관련 주제는 기피 대상이었다. 소련 말기부터 체르케스 문제는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19세기 카프카스 전쟁에 대한 새로운 연구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체르케스 문제에 대한 관심은 중앙과 지방의 정기적인 학술회의와 저술, 체르케스인 디아스포라의 활동, 카프카스 전쟁 기념물 건립을 둘러싼 ‘역사기념물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카프카스 지역 사회단체의 활동과 시민 참여 추모 행사를 통해서 표출되어 왔다. 이렇듯 오늘날 러시아에서 19세기 카프카스 전쟁은 과거이자 현재의 문제이다.

‘체르케스 문제’가 특히 러시아 국외에서 이슈가 되자 “역사의 정치화” 즉 “체르케스 문제의 정치화” 문제가 대두되었다.³⁾ 주로

-
- 1) ‘카프카스’라는 용어는 러시아어 카프카스(Кавказ), 영어 코카서스(Caucasus), 영어를 기준으로 한 캅카스 등으로 쓰이고 있으나, 역사학계의 지역어 표기 경향에 따라 본 글에서는 카프카스로 사용함.
 - 2) 체르케스인(черкесы)은 북서카프카스에 사는 민족으로 체르케스인들은 자신들을 아디그인(адыги)이라 부른다. 카프카스 전쟁을 계기로 전체의 10% 정도만 북카프카스 지역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 90%는 터키, 요르단, 시리아, 리비아, 레바논, 독일, 미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여러 통계에 따르면 5~7백만 명의 체르케스인(아디그인)이 러시아 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체르케스인을 구성하는 민족으로 아디그인, 카바르딘인, 샵슈기인 우브호인, 아바드제호인, 브제두그인, 하투카이인, 나투하이인, 테미르고예브인, 아바진인, 베스레네예브인 등이 있다.
 - 3) 2008년 조지아-러시아 전쟁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된 가운데, 2011년 5월 20일 조지아 의회는 카프카스 전쟁에서 러시아제국의 체르케스인 제노사이드를 인정하는 결정문을 승인하였다. 이 외에 ‘정치화’를 둘러싼 논쟁은 A. Скаков, Н. Силаев, “Черкесский фактор в современ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Кавказском регионе”, Московский центр Канерги, Российская экспертная группа, Доклад № 2010/1. сс.1-4; Н.С. Белякова, “Роль и место Черкесского вопроса в политике США, ЕС и Турции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Вестник РУДН, сер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2015, No. 1), сс.177-183 참조.

러시아의 중앙과 루스끼⁴⁾ 학자들을 중심으로 체르케스 문제의 정치화를 비판하고 있다.⁵⁾ 다른 한편에서 체르케스 문제는 19세기 카프카스 전쟁 말기 체르케스인들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밝히고 이를 통한 체르케스인 민족정체성 회복은 물론 역사 바로 세우기였다. 주로 카프카스 지역 학자들을 중심으로 카프카스 전쟁 말기 북서카프카스 지역에서 차르 정부가 실시한 오스만제국으로의 체르케스인 이주정책을 비판하고 있다.⁶⁾ 체르케스 문제는 발생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국내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식민정책), 루스끼와 카프카스 민족들의 관계(민족정책), 정교도(기독교도)와 무슬림 간의 관계라는 카프카스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또한 오늘날에도 체르케스 문제에는 카프카스 지역 전체의 안정문제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체르케스인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어 있는 터키와의 관계, 체르케스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서방의 관계 등 지정학 및 국제정치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⁷⁾ 이러한 관점에서 ‘체르케스

4) 이 글에서 ‘루스끼’라는 용어는 러시아 연방 내에서 동슬라브계나 비카프카스계를 의미함.

5) 이와 관련된 자료로는 2014년 1월 29일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원탁회의 “Кавказская война в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к 150-летию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ujTCb6vhJjs>(검색일:2015-10-10); А.Ф. Авидзба, “Черкесский вопрос» как фактор антироссийской политики на Кавказе”, *Северо-Западный Кавказ от прошлого к настоящему*: Сборник материал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Ростов-на-Дону: Фонд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 2014), с.35.

6) 관련 학술회의 성과(발표집)인 *Материалы круглого стола <<Черкесский вопрос: опыт, проблемы, перспективы научного осмысления>>*. Кабардино-Балкарский институт бизнеса. Нальчик. 2013; *Кавказская война: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исторического дискурса(к 150-летию окончания)*(Нальчик. 2014) 참조.

7) 2011년 4월 시리아 내전 발발로 시리아에 살고 있는 체르케스인들의 카프카스로의 귀향 문제가 체르케스인 디아스포라와 러시아 정부,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내 공화국(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 간의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 거주 체르케스인 포함 해외 거주 체르케스인의 귀국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И.С. Бичиева, “Репатриация адыгов на рубеже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림 1> VIRGINIA W. MASON, NGM STAFF

SOURCES: SUFIAN ZHEMUKHOV,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annah Thoburn, Brookings Institution.

출처: <http://ngm.nationalgeographic.com/2014/01/sochi-russia/circassia-map>
(검색일: 2015 -03-05).

XX-XXI вв.(К проблеме преодоления последствий Кавказской войны”, *Кавказская вой на: уроки истор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Материалы Всероссийск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состоявшейся 19-22 мая 2004 г.)(Май коп. 2006), сс.31-38 참조.

본 글에서는 19세기 카프카스 전쟁의 역사적 유산인 ‘체르케스 문제’와 그 핵심인 1850~1860년대 체르케스인(아디그인)들의 이주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연구 전통을 간략히 소개하고 본문에서는 최근 15년 동안의 연구 성과와 관련 학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르 정부의 카프카스 전쟁 정책과 식민정책, 19세기 전반 체르케스인의 오스만제국 이주의 배경, 과정, 성격과 결과를 살펴본다. 특히 체르케스인들의 ‘이주’가 무하취르스트보⁹⁾, 자발적 이주, 반강제이주, 강제이주, 추방, 민족청소 혹은 제노사이드의 결과인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체르케스 문제”가 단순히 역사 정치화의 산물인지 체르케스인들의 “역사 정의” 회복 문제인지 고찰한다.

나. 카프카스 전쟁¹⁰⁾에 대한 3가지 역사서술 전통

2001년 “역사서술에서의 카프카스 전쟁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8) 카프카스 전쟁과 체르케스 문제를 바라보는 학자들이나 사회단체들의 입장에 따라 ‘이주’와 관련된 표현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관계로, 중립적으로는 ‘이주(переселение)’라는 표현을 사용하되 구체적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선택한 표현(‘추방 депортация’, ‘강제 퇴거 выселение’, ‘강제이주’, ‘반강제이주’, ‘청소 очищение’ 등)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였다. 특히 사료의 직접 인용 시에는 원어 표기를 병행하였다.

9) 러시아에서 ‘무하취르스트보(이주)’(мухаджирство, muhajirun, ‘무하취르(이주자들)’, мухаджеры, muhajirs)는 非무슬림 국가에서 무슬림 국가로의 이주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의 ‘이주’를 말하며, 무엇보다도 기독교 국가에 의한 무슬림 영토 합병과 같은 전쟁행위의 결과가 이주의 원인이다. 또한 합병으로 무슬림이 종교적 소수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여 일어나는 이주를 말한다. *Абдурахман из Газикх муха Книга Воспоминания*(Махачкала, 1997), с.96 참조.

10) 카프카스 전쟁이란 ‘용어’와 ‘전쟁기간’에 대한 입장 속에서 카프카스 전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읽을 수 있다. 『러시아 역사 백과사전』에 “카프카스 전쟁은 1817-1864년 동안 러시아제국과 북카프카스 민족들 간의 전쟁”으로 설명되어 있다.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Составители: Б. Ю. Иванов и др.(Москва: Большая Рос. энцикл., 1999), с.228; 반면에 체르케스(아디그)인 역사가자들을 중심으로

있다”¹¹⁾는 현대 러시아 역사가인 올레이니코프(Д.И. Олейников)의 표현에서 소련 해체 이후 카프카스 전쟁을 둘러싼 러시아 역사학계의 동향과 사회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2014년 10월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의 수도인 날치크(Нальчик)에서 열린 카프카스 전쟁 15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카프카스 전쟁에 대한 연구사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 카프카스 전쟁을 둘러싼 학문적 견해 차이 이상의 무엇이 존재함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카프카스 전쟁에 관한 연구는 러시아어권 외에도 여러 언어권에서 진행되었다. 연구 성과는 세 개의 주요 정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러시아제국, 카프카스 산악민족들(무슬림 저항운동 지지자들), 서구열강이다. 이러한 전통은 역사학에서 카프카스 전쟁의 해석과 평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계속되고 있다. 첫째 러시아제국주의 전통은 특히 러시아 혁명 이전에 지배적이었다. 러시아 혁명 전에는 로마노프스키

로 “러시아-카프카스 전쟁”과 “러시아-체르케시야 전쟁”, 특히 후자의 수용과 더불어 전쟁기간 또한 1763-1864년, 101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주장이다. 1763년은 차르군대가 모즈독(Моздок: 카바르다(Кабарда)의 북쪽. 오늘날 북오세티야 공화국 남부)에 요새를 세우기 시작한 해로 차르군대 장군이자 전쟁역사가인 바실리 포토(В.А. Потто, 1836-1911)는 모즈독 요새 건설을 “카프카스 정복의 초석”으로 평가하였다. В.А. Потто. *Кавказская война. Том 1. От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ён до Ермолова*(Ставрополь, 1994(1899)), с.56. 이에 근거하면 카프카스 전쟁은 체르케시야에서 시작해서 체르케시야에서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Б.Х. Бгажноков. “Моздок в истории Кавказской войны.” *Кавказская война: события, факты, уроки.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г. Нальчик 15 - 19 октября 2014 г.)*(Нальчик, 2014), сс.3-22 참조.

11) Д.И. Олейников, “Россия в Кавказской войне: поиски понимания”, *Россия и Кавказ сквозь два столетия*(СПб., 2001), с.69.

12) “Рекомендаци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Кавказская война: символы, образы, стереотипы (к 150-летию со дня окончания)»” <http://www.heritage-institute.ru/images/docs/kav-v-conf2014-rekom.pdf>(검색일: 2016-01-10).

(Д.И. Романовский)¹³⁾를 필두로 혁명 이후에는 미국 이민자 후손인 라자노프스키(N. A. Riazanovsky),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블리에프(М.М. Блиев)와 데고예프(В.В. Дегоев)가 그 전통을 이었다.¹⁴⁾ 제국주의 전통의 핵심 개념은 “카프카스 평정(안정화)”과 “식민화”였다. 둘째 전통은 산악민족해방운동으로 소비에트시기에 만들어진 학문 전통이다. 핵심 개념은 “정복 vs. 저항”이다. 레슬리 블랑쉬(Lesley Blanch), 로버트 바우만(Robert F. Baumann), 모쉬 감머(M. Gammer) 등 적지 않은 서방학자들이 산악민족들의 저항운동을 지지했다.¹⁵⁾ 이들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러시아 문서 보관소의 1차 사료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가운데, 바우만은 주로 “카프카스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간섭”에 관심을 두었다. 감머는 주변국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맞선 샤밀의 저항에 주목한 가운데 러시아 국외 문서 보관소에 산재해 있던 1차 자료들을 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시기에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인 카프카스 전쟁 말기 체르케스인 이주 원인과 과정, 이주의 성격과 카프카스 전쟁에서 체르케스인의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자체가 불가능했다. 셋째는 서방에서 지배적인 지정학적 전통이다. 이 전통은 먼저 데이비드 어크하트(David Urquhart)의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페르시아와 터키를 보호하는 ‘방패’로서

13) Д.И. Романовский, *Кавказ и кавказская вой на Публичные лекции*(СПб., 1860) 참조.

14) N.A. Riazanovsky, *A History of Russia*(N.Y.: Oxford, 1993), p.389; M.M. Блиев и В.В. Дегоев, *Кавказская вой на*(Москва,1994) 참조.

15) Lesley Blanch, *The Sabres of Paradise: Conquest and Vengeance in the Caucasus (a biography of Imam Shamil and history of Imperialist Russian rule in early 19th century Georgia and the Caucasus)*(London: BookBlast ePublishing, 1960); Robert F. Baumann, *Russian-Soviet Unconventional Wars in the Caucasus, Central Asia, and Afghanistan* (Leavenworth: Combat Studies Institute, 1993), pp.1-7; M. Gammer. *Muslim Resistance to the Tsar: Shamil and Conquest of Chechnya and Daghestan*(London: Routledge, 1994).

카프카스의 이미지에서 발견된다. 이런 전통의 고전적 연구로는 존 바델리(John F. Baddeley)의 *The Russian Conquest of the Caucasus*¹⁶⁾가 있다.

본 글의 핵심 연구대상인 ‘체르케스인 이주 문제’에 대한 최근 연구는 주로 카프카스 민족 출신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¹⁷⁾ 러시아 중앙의 학자들은 대부분 체르케스인들의 많은 희생¹⁸⁾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러시아제국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체르케스 문제의 초점을 체르케스인들이 오스만제국으로 이주한 후의 상황과 오스만제국의 동화정책으로 인한 체르케스인들의 희생에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카프카스 전쟁에 대한

16) John F. Baddeley, *The Russian conquest of the Caucasus*(London, New York, Bombay, Calcutta: Longmans, Green and Co., 1908). 이 외에도 *North Caucasus Barrier. The Russian Advance toward the Muslim World*/Ed. by M.Bennigsen(London: C. Hurst & Company, 1992)에서 지정학적 연구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17) А.Х. Бижев, *Адыги Северо-Западного Кавказа и кризис Восточного вопроса в конце 20-х - начале 30-х гг. XIX века*(Май коп, 1994); А.Д. Панеш, *Западная Черкесия в систем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и с Турцией и имаматом Шамиля в XIX в. (до 1864 г.)*(Май коп, 2007); Э.А. Шеуджен, *Кавказская война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К 145-летию окончания Кавказской войны*(Май коп, 2009); *История адыгов в документах Осм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рхива* Вып. 1. отв. Ред. Б.Х. Бгажноков, сост. А.В. Купхабиев(Нальчик, 2009).

18)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은 19세기 러시아제국군에 내몰려 체르케스인(아디그인) 90%가 고향인 카프카스를 떠나야 했으며, 10%만이 고향에 남았는데, 150년이 지난 지금 체르케스인 전체의 90%가 여전히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고, 10%만이 카프카스를 중심으로 러시아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터키를 중심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체르케스인은 450~7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터키에만 약 1백50만 명~3백5십만 명 이상의 체르케스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Б.Р. Алиев,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ая диаспора: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 XX вв.)*(Махачкала: Новый день, 2001), с.94; А.В. Купхабиев, *Проблемы репатриации зарубежных черкесов: история, политика, социальная практика*(Нальчик: КБНЦ РАН, 2013), с.40 등 참조. 참고로 터키와 시리아를 비롯하여 해외 거주 체르케스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추정치만 있을 뿐이다.

해석은 중앙과 지방, 루스끼와 카프카스인(특히 체르케스인, 체첸인, 다게스탄인)으로 단순 구분이 가능할 정도이다.

한국 내에서 카프카스 전쟁사 연구¹⁹⁾는 정세진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북카프카스에서 카프카스 전쟁과 이슬람적 요소」(모스크바, 2005년)은 카프카스 전쟁에 대한 국내 연구 중 선구적인 학문적 접근이었다. 그는 당시까지 중요성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19세기 카프카스 전쟁에서의 이슬람 요소를 연구하였다. 비슷한 시기 박태성의 「러시아의 북카프카스 병합과정과 의미」(2005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태성의 연구는 러시아의 북카프카스 병합과정을 16세기~19세기 카프카스 전쟁 종료까지 통시적으로 다뤘다. 결과적으로 그의 연구를 심화·발전시킨 정세진의 「러시아제국의 확장과 북카프카스: 이념, 정복, 그리고 저항」(2013)은 최근의 연구동향을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제국이념, 폭력, 그리고 저항의 관점에서 러시아제국 확장의 이념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이정하의 「크림전쟁 직후 러시아제국의 카프카스 전략 - A.I. 바라틴스키의 구상과 그 영향」(2015)이 있다. 그는 카프카스 지역을 비롯한 남부국경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바라틴스키가 카프카스에 대한 군사 정복의 완수와 카프카스와 아시아를 중추로 삼은 전략을 전략 차원을 넘어선 대전략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하였다고 본다. 즉, 19세기 중반 러시아제국의 카프카스에서의 군사 활동을 당시

19) Чжун Се Чжин. “Кавказская война и Исламский фактор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Первая половина XIX века)”: Дис. ...канд. наук; Исторические науки(Москва, 2005); 박태성, 「러시아의 북카프카스 병합과정과 의미」, 『슬라브연구』, 21권 1호, 러시아연구소, 2005, 113~139쪽; 정세진, 「러시아제국의 확장과 북카프카스: 이념, 정복, 그리고 저항」, 『동유럽발칸연구』, 36권, 동유럽발칸연구소, 2013, 269~300쪽; 이정하, 「크림전쟁 직후 러시아제국의 카프카스 전략: A.I. 바라틴스키의 구상과 그 영향」, 『史叢(사총)』, 87권, 역사연구소, 2016, 245~275쪽.

제국이 처했던 군사적, 전략적 상황과 바라틴스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해보면, 한국 내 기존의 연구는 19세기 카프카스 전쟁과 관련해 주로 북카프카스와 북동카프카스 지역인 체첸과 다게스탄에 집중되었다. 즉, 북서카프카스 지역인 ‘체르케스 문제’를 카프카스 전쟁의 일부로 간략히 언급한 정세진과 박태성의 연구 외에 카프카스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체르케스인 이주’와 관련된 구체적인 국내 학술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²⁰⁾

2. 19세기 중반 체르케스인의 오스만제국으로의 이주 배경, 과정, 성격

가. 이주 배경: 차르 정부의 북서카프카스 정복정책

1860년대 차르 정부의 카프카스 지역 식민정책은 1861년 9월 차르 알렉산드르 2세(Александр II, 1818~1881)가 체르케스인(샤슈기인, 아바드제흐인, 우브흐인, 나투하이인)의 대표들에게 한 최후 통첩에 잘 나타나 있다. 차르는 한 달 이내에 체르케스인은

20) 이 외에도 북카프카스, 자카프카지예 지역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있지만, 이들 논문에서는 카프카스 전쟁을 소련 해체 이후 발생한 분쟁들과 이 분쟁들의 정치·사회·문화적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배경 지식으로 간략히 통사적으로 언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황성우, 김선래, 「북카프카스 지역갈등의 사회문화적 요인- 체첸 공화국을 중심으로 -」, 『슬라브研究』, 22권 1호, 러시아연구소, 2006, 143~174쪽; 박태성, 「러시아 역사발전 과정에서의 자카프카지예: 자카프카지예의 발전과정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슬라브研究』, 22권 2호, 러시아연구소, 2006, 105~140쪽. 황성우, 김선래, 「자카프카지예 지역갈등의 사회문화적 요인」, 『국제지역연구』, 11권 4호, 국제지역연구센터, 2008, 479~497쪽 등.

그들이 살던 땅을 떠나 러시아 정부가 정해준 곳으로 이주하던지 러시아군의 공격을 감내하던지 선택하라고 말했다.²¹⁾

앞에서 언급한 차르의 선택지와 달리 차르 정부의 체르케스인 이주정책은 체르케스인을 국외(오스만제국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카프카스군 사령부 책임자인 육군소장 밀류틴(Д.А. Милютин, 1816~1912)은 카프카스 정복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하나는 지역민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살던 지역에 놔두는 것,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빼앗고 정복자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특히 동카프카스 민족들에게 유용하였지만 “자쿠반 지역 체르케스인들에게는 그러한 방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밀류틴은 판단했다.²²⁾ 사실상 차르가 제시한 선택지와 차르 정부의 이주 정책에 체르케스인들이 자신들의 땅에 남을 수 있는 권리는 없었다.

체르케스인의 국외 이주 계획은 1860년대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전에는 모든 산악민들을 제거하려는 고려는 없었다. 중장 세레브라코프(Л.М. Серебряков, 1792~1862)는 1853년 6월 17일 “경솔한” 나투하이인들의 평화애호적인 약속에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나투하이인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그들을 무력으로 추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동시에 그들의 땅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켜야 한다”고 카프카스 총사령관에게 보고했다.²³⁾

1860년대 차르 정부의 정책은 처음부터 체르케스인들의 국외 이주였음이 차르가 제안한 국내 이주 계획에서도 확인된다. 차르 정부는 토지와 새로운 거주지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체르케

21)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ЦГВИА)*. Ф.38, оп.30.286, св.870. д.19.

22) *Акты, собранные Кавказскою Археографическою комиссией*, Т.ХІІ, Ч.ІІ(Тифлис, 1904), с.762; 우측 지도 자료 출처: <http://www.geocurrents.info/geopolitics/circassia-and-the-2014-winter-olympics>(검색일: 2016-03-05).

23) Там же. с.700.

스인의 국내 이주보다 손쉬운 방법인 국외(오스만제국)로의 강제이주를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서 종전(終戰)을 앞당길 수 있고 전쟁을 “영원히” 끝낼 수 있으며 북서카프카스에 대한 러시아 소유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차르 정부군 측에 복종을 전제로 진행한 쿠반 좌측 연안으로의 체르케스인 이주정책은 선언적 성격을 지녔다고 봐야 한다.²⁴⁾ 이유는 차르 정부군은 체르케스인들의 오스만제국으로의 이주에만 관심을 가졌고 이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세르만(А.Л. Зиссерман, 1824~1897)은 야전사령관 바라틴스키(А.И. Барятинский, 1815~1879)에 관한 전기(傳記) 논문에서 바라틴스키와 예브도키모프(Н.И. Евдокимов, 1804-1873)는 “실사 그들이 원할지라도 산악민족들을 평원으로 이주시키는 것보다, 오스만제국으로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²⁵⁾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실제로 차르 군대는 산악민들의 대부분을 쿠반 지역으로가 아닌 해안으로 내몰았다. 이 상황에서 산악민들은 오스만제국으로 떠나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카프카스 능선의 북쪽 길은 산악민들에게는 되돌아 갈 수 없는 길이 되었다.²⁶⁾ 차르 정부가 제시한 쿠반 지역의 체르케스인 이주 제안이 처음부터 선언적이었음은 1858년부터 쿠반 지역 책임자가 이미 쿠반 지역의 토지 부족을 이유로 정복된 산악민들의 쿠반 이주를 반대한 데에서도 확인된다. 1858년 6월 28일자 바라틴스키가 바실리치코프(А.И. Васильчиков, 1818~1881) 공(公)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은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어찌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재도 미래 지방권력에게

24) А.П. Берже, “Выселение горцев с Кавказа”,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1882), Т. 33, с.348.

25) А.Л. Зиссерман, “Фельдмаршал князь А.И.Барятинский”, *Русский архив* в. Кн.I, Вып.II, (M.,1889), сс.246,269.

26) Его же, с.177.

도 큰 어려움이다. ... 또 토지 부족으로 스타브로폴 지역에 그들을 이주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 카자키 계층으로 편입을 위해 돈(Дон) 지역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불가능하다. 산악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어쨌든 정부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산악 지역에서 나온 이 산악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산악민들 사이에 남겨 둘 수도 없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복종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피난처를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형벌을 면하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들의 복종 약속을 거부할 것인가?”²⁷⁾이었다.

결국 6만 명 이상의 체르케스인들이 쿠반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쿠반 지역 책임자나 카프카스군 수뇌부간의 보고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주한 산악민들에게 처음부터 사실상 농경이나 목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는 차르 정부가 새로운 지역에서의 이들의 정착에 별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박애는 러시아인들에게: 나는 러시아인의 이익을 마지막까지 만족시킨 연후에 남는 것을 산악민들에게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²⁸⁾고 한 예브도키모프의 체르케스인 “청소(очищение)”계획에 부합되었다. 결국 대다수 쿠반 지역 체르케스인 이주자들은 그 곳을 떠나야만 했다.

차르 정부의 체르케스인 국내이주정책이 선언적이었던 것과 달리 국외이주정책은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차르가 임명한 카프카스 대리자는 먼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러시아 대표에게 “터키 정부가 이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줄 것”²⁹⁾을 요청했다. 로리스-멜리코프(М.Т. Лорис-Меликов, 1825~1888)

27) *Акты, собранные Кавказскою Археографическою комиссией*, Т.ХІІ, Ч.ІІ (Тифлис, 1904), с.782.

28) Р.А. Фадеев, “Письма с Кавказ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орядок Россия и Кавказ*(Москва, 2010), с.184.

29) Г.А. Дзидзария, *Махаджирство и проблемы истории Абхазии XIX столетия*(Сухуми, 1982), с.206.

육군소장은 모든 터키 선박 소유주들에게 러시아 항구에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염려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관검사 없이 물품 하역이 가능하며, 이는 흑해 전 연안에서 체르케스인들을 승선시키는 일에도 적용된다고 알렸다.³⁰⁾ 또 다른 관련 근거로 카프카스 대리자는 쿠타이스크(Кутаисск) 총독이자 육군 중장인 스바토폴크-미르스키(Д.И. Святополк-Мирский, 1825~1899) 공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산악민족들이 이주하는데 중요한 장애는 심각하게 부족한 수송수단이다. 이에 우리는 잠시 동안 우리의 행동방식을 바꿔야만 한다. 한시적으로, 터키 선박들이 밀수품을 적재하고 있더라도, 산악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연안의 어떤 곳에 정박하더라도 그들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그들이 돌아갈 때 터키로 이주하는 산악민족들을 승선시킬 경우에는 선박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 이주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 현재 우리의 행동은 카프카스 전역의 정복을 앞당길 것이다.³¹⁾”

차르 정부는 체르케스인들의 국외(터키) 이주를 위해 법 제정과 외교적 지원을 강화했다. 1862년 5월 10일 차르 정부는 <카프카스 위원회>의 「산악민들의 이주에 관한 법」을 제정했으며 <터키 이주를 돕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는 북카프카스 산악민 이주자들의 수송을 위해 선주(船主)들과의 협상을 주도했다.³²⁾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차르 정부의 체르케스인 이주정책은 분명 ‘다른 선택이 없는 강제 민족 단위 국외 이주’ 혹은 ‘추방’ 정책으로 봐야 할 것이다.

30) *Трагические последствия Кавказской войны для адыгов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века.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и материалов*(Нальчик, 2000), с.75.

31) *Там же*, с.84.

32)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Ответ. редакторы В.О. Бобровников, И.Л. Бабич(Москва, 2007), с.164;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Итоги Кавказской войны и переселение горцев Кавказа”, *Вестник Российской нации*, (2014), № 1. с.33.

나. 체르케스인의 오스만제국 이주 과정과 성격

1) 무하쥐르스트보, 강제이주, 추방, 민족청소, 제노사이드?

19세기 북서카프카스 역사에서 핵심적이며 복잡한 주제는 카프카스 전쟁 말기와 종전(1864년) 직후에 있었던 카프카스 산악민족들의 대규모 이주 문제이다. 이 시기에 일어난 ‘대규모 이주’는 보는 관점에 따라 무하쥐르스트보(мухаджірство, muhajirun)³³⁾, 강제이주, 추방, 민족청소, 제노사이드로 볼 수 있다. 체르케스 문제에서 무하쥐르스트보는 오늘날 북서카프카스(카바르디노-발카리아,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야, 아디기야, 크라스노다르 크라이)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³⁴⁾ 19세기-20세기 초 동안 북서카프카스 지역 산악민 90% 이상이 자신들의 땅을 떠나야만 했던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발레리 티쉬코프(Валерий Тишков)³⁵⁾에 의하면 카프카스에서 무하쥐르스트보는 1817년-1864년 카프카스 전쟁 말기와 19세기 마지막 10년-20세기 초 동안 러시아제국에 의해 정복된 카프카스 지역 토착민의 오스만제국으로의 대규모 탈출(주로 무슬림 원주민)을 말한다. 티쉬코프는 이들 중에 아디그인(체르케스인)들이

33) 무하쥐르스트보에 대해서는 각주 ‘9)’번 참조.

34) 이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은 “Черкесская диаспора”, *Адыгская (черкес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Москва, 2006), сс.405-472; А.Х. Боров, «Черкесский в опрос» как историко-политический феномен(Нальчик, 2012); *Черкесский вопрос: история, проблемы и пути решения*(Нальчик, 2012); *Кавказская война: уроки истор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Материалы Всероссийск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состоявшейся 19-22 мая 2004 г.) (Май коп. 2006) 참조.

35) 발레리 티쉬코프는 현재 러시아 학술원 회원이며 1989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학술원 산하 인종인류학 연구소 소장으로서 러시아 내 민족문제를 비롯하여 카프카스 문제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서 ‘체르케스 문제’, 특히 체르케스인 이주 성격에 대한 그의 입장은 러시아의 중앙과 주요 루스끼 카프카스 전문가의 일반적인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다수라는 입장이다.³⁶⁾ 티쉬코프는 무하쥐르스트보의 원인으로 전쟁·정치적, 종교적, 혈연적, 지정학적, 사회·경제적 등 복합적³⁷⁾ 원인을 지적하면서도 무하쥐르스트보의 주된 원인을 주로 사회·경제적, 지정학적(‘동방문제, восточный вопрос’)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전쟁·정치적 측면에서 티쉬코프는 차르 정부가 주도한 「산악민들의 추방 계획」의 잔혹성³⁸⁾ 외에도 전쟁기간 동안 내부 이주(산악민들의 평원으로 이동), 중앙과 북서카프카스 지역에 방어적 성격을 지닌 마을이나 도시-요새들의 축성, 러시아군의 식민정책을 무하쥐르스트보의 원인으로 본다. 아울러 강제이주는 러시아군 뿐만이 아니라 샴일(Шамиль, 1797~1871)에 의해서도 이맘마트(имамат, 신정국가)에 반대하는 산악민들에게 행해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종교적 측면에서 티쉬코프는 무슬림 성직자들이 무하쥐르스트보에 영향을 끼친 점에 주목하였다. 아디그인 무슬림 성직자들은 정교 차르 권력 하에 있기를 원치 않아 이주를 택했으며, 여기에 더해 지역민들 사이에서 심각한 소문이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루스끼들이 지역민을 러시아군에 징집할 것이며 징집되면 이슬람 전통 의식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었다.³⁹⁾ 실제로 이러한 종교적 측면은 다게스탄(아바르인들과 라르긴인들)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녔는데, 다게스탄에서의 무하쥐르스트보는 북서카프카스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규모라고 설명한다. 그런가 하면 티쉬코프는 이맘 샴일 대리자들의 터키로의 이주가 무하쥐르스트보 확산의

36)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23. ‘체르케스인 이주-무하쥐르스트보’라고 주장하는 다른 학자들과 달리 강제성(“강제된 이주자-무하쥐르”)을 인정한다.

37)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с.163.

38) Р.А. Фадее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орядок: Россия и Кавказ(Москва, 2010).

39)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30.

축매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카프카스 산악민들의 이주에서 종교적 요소를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다.⁴⁰⁾ 티쉬코프의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무하쥐르스트보에서 종교적인 요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티쉬코프가 말하는 당시의 체르케스인 무하쥐르스트보가 ‘강제된-무하쥐르스트보’이든 아니든 무하쥐르스트보라 규정할 수 있는가이다.

실제로 체르케스인의 오스만제국 ‘이주’ 과정에서 이슬람 요소는 다른 카프카스 산악민족들과 달리 매우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이슬람 요소의 핵심이어야 할 이슬람 정신으로 무장한 對러시아 투쟁인 ‘무리디즘(Мюридизм)’⁴¹⁾, 즉 이슬람 제자운동이 아디그인들 사이에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드루이드교(Друидизм)와 아디게 하브제(адыгэ хабзэ)였다. 전자는 다신교적 특성을 지닌 전통신앙으로서 19세기 중반 즉 1864년 체르케스인들이 고향을 떠날 때까지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후자인 ‘아디게 하브제’(체르케스 에티켓)는 체르케스인들 사이에서 계승되어 온 관습이자 약속인 것이다.⁴²⁾ 우네ژه프(К.Х. Унежев)는 카프카스의 다른 민족들에게서와 달리 아디그인들의 삶에서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아디게 하브제는 거의 모든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종교보다 더 많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이다.⁴³⁾

티쉬코프는 무하쥐르스트보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아디그인(체르케스인) 귀족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디그인들이 러시아군의

40) Их же.

41) 무리디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세진. “19세기 카프카스 전쟁과 이슬람 요소” 『슬라브연구』 21(1), 2005, pp.165~188 참조.

42) М. Кандур, *Мюридизм история Кавказских войн 1819-1859*(Нальчик, 1996); Б.С. Агрба, С.Х. Хотко, «Островная» цивилизация Черкесии(Майк оп, 2004), сс.39-40; Б.Х. Бгажноков, *Адыгская этика*(Нальчик, 1999).

43) К.Х. Унежев, *Феномен адыгской (черкесской) культуры*(Нальчик. 1997).

통제 하에 있는 지역에 머물 것인가 혹은 터키로 떠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처했을 때 귀족들이 대규모 무하쥐르스트보에 앞장섰다는 견해다. 이유는 농노해방(1861년)에 따른 노동력 손실은 물론 그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줘야 했던 당시 상황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귀족들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킨 건 1862년 산악지역으로부터 이주한 노예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살기 용이한 곳으로 이주시키기를 바란다는 카프카스 러시아 행정당국의 발표였다는 것이다.⁴⁴⁾ 아마도 귀족들로부터(지배층으로부터) 산악민들을 분리시킴으로써 산악민들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배층을 약화시켜 카프카스 정복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었다. 티쉬코프가 지적한 대로 농노해방령 선포의 또 다른 효과는 카프카스에서 기반을 잃은 귀족들이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들이거나 이주하는 것이었다. 귀족들이 떠나자 일반 산악민들도 따라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주에 필요한 경제력 보유 여부를 떠나 다른 때보다도 전쟁 상황에서 이주를 이끄는 지도층(귀족)의 역할은 더욱 컸을 것이다. 하지만 1860년대 전반 치열하게 전투가 진행되던 북서카프카스 지역에서 이런 상식은 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1864년 일시에 북서카프카스의 흑해연안으로 내몰린 수십 만 체르케스인들의 규모와 비교하면 귀족들이 주도한 이주 규모는 소규모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티쉬코프는 무하쥐르스트보의 또 다른 사회적 요인으로 많은 경우 산악민들은 종교나 사회적 상층부의 영향력 있는 일가친척들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견해다. 이들은 종족 내부의 관습과 전통을 악용하였으며 이들의 영향 하에 이주자들은 순진하게 당시의 러시아군에 의한 고통스런 삶과 모욕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했으리라는

44)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28;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во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Ф. 14257. Оп. 3. Д. 534. Л. 1-2 об.

지적이다.⁴⁵⁾ 이런 주장은 데고예프(B.B. Дегоев)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는 “대규모의 이주를 촉진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체르케스 귀족들에 의존하였다. 군사·정치적 문제들보다는 오히려 러시아 권력 하에서 개인적 사회·경제적 미래를 염려했다”⁴⁶⁾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티쉬코프는 귀족들뿐만 아니라 대규모 무하쥐르스트보가 가능했던 사회·경제적 이유로 토지와 재산을 잃은 참전자들이 가족과 함께 기꺼이 오스만제국으로 떠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산악민들에게 익숙했던 인질 획득과 거래는 이제 과거가 되었으며, 자쿠반 체르케시아에서 특히 우브이흐인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었던 노예와 전쟁포로들을 이용한 노예무역 역시 불가능해졌으며, 그래서 우브이흐인들은 카프카스 전쟁 종전 이후 북카프카스를 떠났다는 것이다.⁴⁷⁾ 이러한 주장 역시 시기, 장소, 상황에 따른 이주 규모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티쉬코프의 입장은 명확해진다. 산악민들의 대규모 이주(무하쥐르스트보)는 전쟁·정치·종교적 이유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농노해방령을 계기로 귀족들이 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산악민들을 압박, 설득, 선동한 결과라는 것이다. 즉, 티쉬코프는 대규모 무하쥐르스트보(이주) 책임 문제에 있어서 산악민족들의 상층부인 귀족들에게 책임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1858~1864년 전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특히 1864년 최소 50만 명 이상의 체르케스인들이 일시에 흑해연안으로 내몰렸던 당시 상황에서 귀족들, 친척들의 영향이 컸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티쉬코프의 주장은 1864년

45)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29.

46) В.В. Дегоев. *Кавказ и великие державы*(Москва, 2009), с.442.

47)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29;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Ответ. редакторы В.О. Бобровников, И.Л. Бабич (Москва. 2007), с.164.

이전의 체르케스인들의 이주나 카프카스 다른 지역에서의 무하쥐르스트보 설명에 부분적으로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 시기, 상황에 따른 이주 규모와 성격이 달랐던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티쉬코프는 카프카스 산악민족들의 이주 문제는 러시아와 터키 정부의 관심사로 무하쥐르스트보는 근동지역에서 계속되던 러시아-터키 간 경쟁의 일부였으며, 경쟁은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서구 열강들의 간섭으로 복잡해졌다는 견해다. 그는 당시 터키 정부의 적극적인 체르케스인 유입 정책 목적은 첫째는 소요 위험성이 높은 발칸 지역과 소아시아에서 기독교인 대비 무슬림의 균형 맞추기, 둘째는 오스만제국 내 민족해방 운동 진압을 위한 형벌적 수단으로써 체르케스인 이용, 셋째는 러시아에 맞서 터키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이주자들로 터키 군대를 충원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넷째는 서구 열강, 특히 영국이 산악민들의 정서를 이용해 러시아를 견제하려 했는데, 영국인들은 억울해하는 산악민들 속에서 러시아에 대항할 무기를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카프카스 산악민족들의 오스만제국으로의 이주는 차르 정부의 정책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견해다.⁴⁸⁾

티쉬코프가 제시한 터키와 영국의 체르케스인 유입 정책은 대부분 사실에 가깝고 이러한 상황이 19세기 전체에서 발견되지만, 제시한 네 가지 사항은 시기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례로 북서카프카스에서 러시아-터키, 러시아-영국 간 경쟁, 즉 제시한 모든 내용을 차르 정부에 의한 체르케스인 이주정책 시기인 1858~1864년에는 적용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티쉬코프는 체르케스인 이주가 1864년에 집중된 원인과 국제관계의 연관성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를

48)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с.30-31; И.В. Бестужев, *Крымская война* (Москва, 1956), с.17 참조.

포함시켜 체르케스인 이주 문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터키와 열강의 이해관계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서카프카스 지역을 둘러싼 열강들의 정책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바뀌었다. 일례로 북서카프카스에서 체르케스인들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자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세력 확대를 우려한 영국이 이주 초기와 달리 이주에 반대하도록 터키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터키 관계에서도 확인된다.⁴⁹⁾

오히려 북서카프카스 지역에서 차르 정부의 체르케스인 이주정책은 크림전쟁 패배 이후 흑해지역에서 러시아 세력의 약화와 남부국경 지역의 불안정성 증가, 국가재정 악화와 사회적 불안 증가, 카프카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관련짓는 것이 합당하다. 즉, 북서카프카스 경략 과정에서 차르 정부의 이주나 추방이라는 수단의 동원은 차르 정부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앞서 지적한대로 19세기 중반 대규모 이주에 대한 터키 정부의 반대도 있었다. 따라서 터키와 영국 등이 카프카스 내·외부에서 러시아에 대한 저항세력으로서 체르케스인과 체르케스인 이주자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1864년의 대규모 체르케스인 이주의 주된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⁵⁰⁾ 차르 정부는 흑해와 인접한 북서

49) Е.А. Мурзаканова, "Кавказская война и махаджирство." *Кавказская война: уроки истор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Материалы Всероссийск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состоявшейся 19-22 мая 2004 г.)(Май коп. 2006), с.389;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с.173.

50) 북서카프카스(체르케시아) 지역을 둘러싼 러시아와 터키를 비롯한 서구열강의 '동방정책' 혹은 '동방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카프카스 전쟁 말기 체르케스인의 오스만제국으로 '이주'와 관련해서만 간략히 언급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Архи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Ф. Турецкий стол. Оп. 502-а. Д. 4502. Лк. 5-5 об. Его Снятельство у Графу К.В. Нессельроде. 4 ноября 1843 г. (Тифлис); А.В. Фадеев, *Россия и восточный кризис 20-х гг. XIX века*(Москва, 1958; А.К. Чеучева,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на Северо-Западном Кавказе в 50-60-х гг. XIX в.", *Вестник Адыгейского госу*

카프카스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차르 정부는 북서카프카스 지역에서 전세가 이미 러시아 쪽으로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관리하기보다는 이주정책을 통해 ‘영원히’ 제거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티쉬코프는 카프카스 무하쥐르스트보의 역사를 6단계로 구분하였다. ① 1850년대 후반, ② 1860년대 전반, ③ 1860년대 후반-1870년대 초, ④ 1870년대, ⑤ 1880년대-1890년대 초, ⑥ 1890년대 후반-1920년대로, 무하쥐르스트보의 정점은 크림전쟁(1853-1856)과 러시아-터키 전쟁(1877-1878) 사이라는 입장이다.⁵¹⁾ 티쉬코프의 ‘정점’ 시기 구분과 달리 본 글에서는 제2단계인 1860년대 전반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유는 2단계의 이주자 수가 전체 6단계 총합의 70-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 카프카스 지역에서 체르케스인의 90%가 고향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이다.

우선 1860년대 전반 이전인 1840-1850년대 특징은 산악민족 이주가 비공개적으로 메카와 메디나로의 성지순례 명분으로 소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⁵²⁾ 그렇다면 이 시기의 이주가 성지순례 명분으로, 소규모로 진행된 배경은 무엇인가? 1858~1861년에 오스만제국 정부에서 러시아로부터 이주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러시아 정부는 산악거주민들의 종교적 감정을 존중하여 순례를 떠나려는 이들을 막을 수 없다고 터기 정부에 해명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예르몰로프(А.П. Ермолов, 1777~1861) 시기인 1820년대~1850년대까지 오랫동안 러시아

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No. 2, (2012); 정세진,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의 국제관계에 대한 소고 - 전쟁과 종교적 특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7권 1호, 국제지역연구센터, 2013, 115~140쪽 참조.

51)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32.

52) Их же, с.32.

정부가 카프카스 거주민들, 특히 지역 대표들의 성지순례를 제한하거나 방해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북서카프카스 산악민 이주정책이 1860년대 초에 바뀐 것이다.⁵³⁾ 1860년대 초 카프카스의 차르 대리자인 바라틴스키는 군사적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아디그인(체르케스인)을 평원이나 쿠반의 좌안, 혹은 터키로 최대 30만 명을 이주시키는 것 이상의 더 급진적인 정책 승인의 필요성을 알렉산드르 2세에게 설명했고 그를 설득하였다.⁵⁴⁾ 그 결과 제2단계에 해당하는 1862년부터 러시아 정부는 저항하는 카프카스인들(체르케스인들)을 성지순례로 가장해서 터키로 이주시켰다. 예르몰로프 시기와 반대로 러시아 정부는 이주를 최대한 늘렸다. 이에 대해서는 카프카스군 장군이었던 아르벨리아니(Г.Д. Орбелиани, 1804~1883)가 쿠반주 사령관인 예브도키모프에게 보낸 1862년 9월 11일자 서신에 잘 나타나 있다.

“1858년부터 시작된 우리 무슬림들의 터키로의 이주(переселение)는 우리 정부와 터키 정부 간의 매우 적극적인 외교 노력의 결과였다. 본인이 외교문서들을 보고 놀란 것은 터키 정부는 이주민들을 받을 의향이 이전부터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산악민들의 대규모 이주에 따른 어려움과 불만을 표시해 왔다는 사실이다. 터키 장관성은 수차례 터키 주재 우리 대표를 통해 우리 외무성과 차르의 카프카스 대리자에게 이주를 중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명분으로 이러한 불평과 요청을 거절했다. 우리 정부는 무슬림들을 쫓아내는(выселение) 것이 아니라 메카로의 순례를 위해 그들에게 단지 휴가를 주는 것이며 이는 종교관용정책의 일환으로 아마도 터키 정부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역시 그러한 휴가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다. 왜냐하면 이주자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갔기 때문이며, 터키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주자들의 규모가 곧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주자들이 대규모로 흑해연안 항구로 몰려들었을 때 그들의 개인 비용이

53) Д.А. Милютин, *Воспоминания. 1856-1860*(Москва, 2004), с.156.

54)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32.

아니라 국고(國庫)로 용선하였고 그로인해 이주자들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전처럼 터키 정부의 불평을 거절할 그럴듯한 명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은 당장은 터키 정부가 이주자들의 수를 제한 없이 받는데 동의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① 최대한 선박을 많이 용선하되 가능한 한 비공개로 해야 한다. ② 터키 정부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이주자들이 가능한 한 소규모로 떠날 수 있도록 한다. ③ 산악민들 중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는 가족들은 국고로라도 떠나게 해야 한다. 이유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멀리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⁵⁵⁾

인용된 사료는 1860년대 전반 북서카프카스 산악민들의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국외 이주 대상에 ‘저항하는 산악민들’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 규모로 볼 때 사실상 북서카프카스 산악민(체르케스인)들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예브도키모프의 입장에서도 확인된다. 1860년대 러시아군에 저항하는 카프카스 민족들에게 가혹한 태도로 유명한 쿠반주 군사령관 예브도키모프는 1862년 산악민들의 터키 이주에 대해 “서카프카스 정복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며 터키는 산악민들이 절망에 이르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자유로운 출구를 열 것이다. 산악민들은 러시아 정부에 정복당하는 것보다 분명히 죽음과 파괴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⁵⁶⁾ 피력했다. 한편 1860년대 초 북서카프카스 아디그인(체르케스인) 거주지를 러시아군이 원을 그리며 조여들어간 결과 산악민 피난민 규모는 급격히 증가했다. 러시아군의 공격을 피해 체르케스인들이 떠난 자리에는 러시아군의 지시로 카자키 마을들이 들어섰다.

55) *Акты, собранные Кавказской Археограф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ей*, Т.ХІІ, Ч.ІІ, (Тифлис, 1904), сс.1010-1012.

56) С. Кухарук, “Николай Евдокимов”, *Родина*, (1994), № 3/4, сс.64-65.

다. 체르케스인 전쟁난민들의 불가피한 비극, 만들어진 비극?

카프카스 전쟁 말기 차르 정부는 북서카프카스 산악민들의 육로 이주를 불허함으로써 대규모(40~50만) 이주자들이 흑해 연안으로 몰려들게 되었다. 이주 과정에서 소수의 부유한 산악민들은 스스로 배를 빌려 흑해를 통해 터키로 떠날 수 있었지만, 그런 능력이 없었던 대다수 산악민들은 흑해 연안으로 나가 기약 없이 배를 기다리거나 터키로 가기 위한 다른 방도를 찾아야 했다. 러시아군에게 내몰려진 수많은 산악민들을 수송할 배는 매우 부족했다. 또한 어느 누구도 해안에 피난민들의 임시 거처를 세우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산악민들은 식량, 돈과 따뜻한 옷도 없이 배를 기다려야 했고 때로는 3-6개월 혹은 그 이상을 기다리면서 비조차 가릴 수 없는 해안에서 견뎌야 했다.⁵⁷⁾

북서카프카스 산악민-피난민들이 전혀 준비도 없이 흑해 연안으로 내몰린 상황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크림전쟁(1853~1856)에서 벗어나 카프카스 정복에 집중하기 시작한 차르 정부는 사실상 카프카스 전쟁에서 이미 승기를 잡은 때인 1860년대 전반 “체르케스인들이 살던 땅에서 그들을 ‘청소(очищение)’하는 계획을 세우고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북카프카스에 집중시켰다.⁵⁸⁾ 카프카스 산맥의 세 방향에서 포위되어 남쪽으로 쫓겨난

57) 티쉬코프는 재산이 없는 무하쥐르들(이주자들)이 대규모로 모여 있던 지역에 첫째 1863-1864년 동안 기후조건은 1810년 이후 없었던 나쁜 기후환경(추운 겨울)이었으며, 둘째 전염병 확산으로 러시아인 선박 소유주의 수송 거부, 셋째 터키 선주들이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 인원을 초과하여 운항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34.

58) А.С. Марзей, “Выселение адыгов Западной Черкесии в Османскую Империю в период с 1862 по 1865 годы: определяющие факторы процесса”, *Материалы круглого стола <<Черкесский воров: опыт, проблемы, перспективы научного осмысления>>*, Кабардино-Балкарский институт ут бизнеса(Нальчик. 2013), с.34.

체르케스인들은 “... 바다로 내몰렸으며, 그들에게는 터키로 가는 길만이 남아 있었다.”⁵⁹⁾

러시아군에 끝까지 저항했던 북서카프카스의 체르케스인에 대한 이주정책은 카프카스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터키로의 이주정책과는 달랐다. 북서카프카스와 달리 중앙과 북동카프카스 지역에서의 이주는 자발적 측면도 있었지만, 대규모 이주는 없었다. 1865년 오세티야인과 체첸인 거의 5천 세대가 무사 쿤두호프(Муса Кундухов, 1818-1889)의 지도 아래 터키로 이주했다. 이주비용으로 국고에서 은화 13만 루블이 사용되었다. 육로인 군용-그루지아 도로를 따라 블라디카프카스로부터 출발한 각각의 이주 그룹에게는 이동 중 숙식을 위해 150루블이 지급되었다. 그들에게는 가축과 이동용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런데 북카프카스로부터의 아디그-무하쥬르들은 그러한 좋은 이주 조건은 갖지 못했다. 차르 정부는 이들의 요구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재정지원도 없었다. 이와 관련 티쉬코프는 체르케스인(아디그인) 이주에 중앙과 북동지역 카프카스인들에게와 같은 지원이 없었던 이유는 첫째, 러시아 정부가 체르케스인 인구를 잘못 파악했으며(파악한 인구보다 훨씬 많았다), 터키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둘째, 너무 서둘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⁶⁰⁾ 이러한 주장 관련 체르케스인 이주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의 발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설사 그들이 원할지라도 산악민족들을 평원으로 이주시키는 것보다 터키로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 - А.Л. 지세르만⁶¹⁾

“첫째, 박애는 러시아인에게: 나는 러시아인의 마지막 이익까지 만족시킨

59) Г.А. Дзидзария, *Махаджирство и проблемы истории Абхазии XIX столетия*, с.199.

60)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35.

61) А.Л. Зиссерман, “Фельдмаршал князь А.И.Барятинский”, *Русский архив* в. Кн.I, Вып.II, (Москва,1889), сс.246,269.

연후에 남는 것을 산악민족들에게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 Н.И. 예브도키모프⁶²⁾

“정복되지 않는 부족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적대적인 산악민들의 제거 차원에서 카프카스 밖의 이주 장소를 찾아야 한다.” - П. А. 밀류틴⁶³⁾

“바다에 이주자들이 많을수록 앞으로 정복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어려움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 П. А. 밀류틴⁶⁴⁾

“귀국은 있을 수 없다.” - 차르 알렉산드르 2세(1872년 8,500 세대를 대표하여 터키 이주자 대표들이 고향이나 러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차르에게 허락을 요청했을 때 차르의 답변)⁶⁵⁾.

한편, 체르케스인들이 직면한 참혹상에 대해 티쉬코프는 카프카스 산악민족들의 오스만제국 이주 과정에서 잘못된 조치에 대한 책임은 러시아와 터키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대규모 이주와 이주 과정에서 러시아와 터키 이주자 수용소에서의 높은 사망률은 의심할 여지없이 아디그 민족 역사에서 엄청난 비극이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차르 정부에게는 아디그인(체르케스인)의 제거 목적이 없었으며, 카프카스에서 차르 정부 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흑해 연안을 지키고 제국의 새로운 국경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최근 북카프카스 지역 전문가들과 해외 체르케스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체르케스 제노사이

62) Р.А. Фадеев, “Письма с Кавказ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орядок России и Кавказ*(Москва, 2010), с.184; 예브도키모프가 체르케스인 이주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Ответ. редакторы В.О. Бобровников, И.Л. Бабиц(Москва, 2007), с.163.

63) *Акты, собранные Кавказскою Археологическою комиссиею*, Т.ХІ. Ч.ІІ, (Тифлис, 1904), с.772.

64) Там же, с.893.

65) <http://adygi.ru/index.php?newsid=8034>(검색일: 2015-03-05);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36; <http://adygi.ru/index.php?newsid=8034>(검색일: 2015-03-05).

드” 문제에 대해, 티쉬코프는 무하쥐르스트보를 야기한 러시아 쪽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엄격한 법률적 측면(1948년 유엔 협약 기준)에서도 제노사이드로 평가될 수 없다. 차르 정부가 지시한 내용은 산악민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악인들을 정복하기 위해 조직적인 반강제이주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견해다. 그는 19세기 사건들에 현대의 법적 기준 적용은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러 통계에 따르면 50만 명~1백5십만 명의 북카프카스 출신자들이 오스만제국의 여러 지역(소아시아, 근동, 발칸)으로 이주하였다.⁶⁶⁾ 일정기간 북카프카스 서쪽 지역은 사실상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⁶⁷⁾ 즉, 지난 5백년 이상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 온 사람들이 불과 2~3년 사이에 없게 된 상황을 ‘이주’, ‘무하쥐르스트보’, ‘강제된-무하쥐르스트보’, ‘조직적인 반강제이주’ 등 어떤 표현으로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카프카스 전쟁에서 살아남아 북서카프카스를 떠난 체르케스인은 전체의 90%로 알려져 있다.⁶⁸⁾

3. 맺음말

‘체르케스 문제’는 19세기 카프카스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66) А.П. Берже, “Выселение горцев с Кавказа”, *Русская старина*, (1882), Т.33. сс.163, 176; Т.Х. Кумьков, “К вопросу о переселении адыгов в Турцию”, *Ученые записки Кабардино-Балкар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Нальчик, 1971), Вып. 43. с.12; А.А. Ганич, *Черкесы в Иордании: особенност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Москва, 2007), с.36.

67) Валерий Тишков, Валерий Перхавко, с.36.

68) 전쟁 중 희생자와 이주 과정에서의 희생자 등을 고려할 때 전쟁 전에 북서카프카스에는 150만 명~200만 명이 거주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요소이자 한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를 담고 있다. 1864년 카프카스 전쟁의 종전과 함께 ‘체르케시아(Черкессия, Circassia)’라는 지명은 사실상 지도에서 사라졌다. 5백년 이상 북서카프카스 지역에서 살아온 체르케스인(아디그인)들은 카프카스 전쟁으로 인해 인구의 약 90%가 자신들의 땅인 북서카프카스를 떠나야만 했으며, 그들이 살았던 그 곳에는 21세기에도 체르케스인 전체의 10% 정도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가고 있으며, 나머지 90%는 여전히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다. 소련의 해체로 국내·외 체르케스인들은 민족정체성 회복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카프카스 전쟁’과 전쟁의 비극적인 유산인 ‘체르케스인 이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체르케스인들의 역사 찾기와 역사 바로 세우기는 소련 해체 이후 체첸 전쟁과 북카프카스 지역의 오랜 불안정으로 인해 주목을 받지 못했다. 러시아의 주류 학자들, 러시아 중앙 언론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과거 체르케시아 지역(현재의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아 공화국, 크라스노다르 크라이) 출신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카프카스 전쟁을 주제로 큰 규모의 학술회의가 5년 단위로 지방에서 개최되어 왔다. 그러다가 ‘체르케스 문제’는 과거 체르케시아의 중심이었던 소치(Sochi)가 2007년 동계올림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체르케스인 디아스포라와 서방 언론들에 의해 소치 역사, 즉 체르케스인들의 역사가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 19세기 말 체르케스인들의 오스만제국으로 대규모 이주 문제가 있다. 이러한 외부적 자극에 의해 러시아 국내에서도 ‘19세기 카프카스 전쟁(체르케스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마침내 카프카스 전쟁 종전 15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2014년 1월 모스크바에서도 개최되었다.⁶⁹⁾

69) “Кавказская война в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к 150-летию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참조.

혹자는 소치가 올림픽 개최지가 된 이후 ‘카프카스 전쟁(체르케스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열기를 “카프카스 전쟁에 대한 학술회의 전쟁”에 비유하였다.⁷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 카프카스 전쟁(체르케스 문제)’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중앙(주로 루스끼 학자들)과 지방 학자들(주로 카프카스 지역 출신들)⁷¹⁾ 사이에 명확한 입장의 차이가 발견된다. 전쟁 과정에서의 불가피성, 가혹한 정복 정책과 이에 따른 체르케스인들의 큰 희생을 인정하면서도 차르 정부에게는 절대로 체르케스인들을 제거할 목적이 없었으며, 카프카스에서 차르 정부 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흑해 연안을 지키고 제국의 새로운 국경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체르케스인 이주의 원인과 성격에 대해서는 북서카프카스 지역을 둘러싼 러시아-터키-영국 등의 이해관계의 산물임을 강조하면서 간혹 ‘강제된’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하쥐르스트보’였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러시아제국시기의 해석과 다르지 않다. 반면에 본 논문에 인용된 1차 사료들과 카프카스 지역 학자들의 연구에서 확인 되듯이 크림전쟁에서 패배 이후 차르 정부의 북서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식민정책은 다른 북카프카스(체첸과 다게스탄)와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체르케스인 이주정책이 카프카스 전쟁의 전세가 이미 러시아 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체르케스인들처럼 정복 지역의 90%

70) 2010년-2014년 동안 체르케스 문제를 다룬 학술 및 전문가 회의가 러시아에서 26회, 터키에서 37회 개최되었다. В.В. Цибенко, “«Вой на конференций»: черкесская проблематика в научном сообществе России и Турции.” *Север-Западный Кавказ: от прошлого к настоящему*. Сборник материал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Ростов-на-Дону: Фонд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 2014), с.29.

71) 서방 연구자들 중에 W. Richmond는 “체르케스 제노사이드”로 평가한다. Walter Richmond. *The Circassian Genocide*(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013), pp.54~97참조.

거주민을 카프카스 밖으로 몰아낸 경우는 없었다. 러시아 역사 전체에서도 강제이주는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국경 밖으로 몰아낸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차르 정부는 체르케스인들을 북서카프카스 지역의 잠재적인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위협 요소를 관리하기보다는 영원히 없애는 쪽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가 체르케스인들의 오스만제국 이주였다고 볼 수 있다. 이주정책이나 이주과정에 ‘무하쥐르스트보’, ‘강제된-무하쥐르스트보’, ‘강제 퇴거’, ‘추방’ 등의 요소가 혼재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족단위국외추방’ 혹은 ‘민족청소’의 성격이 더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특정 사건이나 역사를 둘러싼 ‘역사 전쟁’ 혹은 ‘역사의 정치화’ 문제는 한 국가 안에서, 국가 간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록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체르케스 문제’가 ‘동방정책’ 혹은 ‘동방문제’라는 이름으로 19세기에도 있었고 21세기에 와서는 소치 동계올림픽 계기로 다시 제기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체르케스 문제가 ‘역사의 정치화’와 연관되는 이유 중에는 1차 사료에 근거한 체르케스 문제의 학문적 연구보다는 시류의 영향을 받거나 지나칠 정도로 기존의 학문적 전통을 고수하는 연구 풍토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특징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러시아 역사교과서의 카프카스 전쟁 서술이다.⁷²⁾ 이러한 면은 19세기 카프카스 전쟁관련 학술회의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특징으로 사료에 기초한 객관적 연구보다는 러시아 혁명 이전의 역사서술 전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존의 주장들이나

72) 러시아 역사 교과서에 “카프카스 전쟁이 러시아 경제 발전을 지연시켰다”고 묘사하였다. 관점에 따라 카프카스 전쟁 기간은 차이가 있지만 100년 이상이 소요되고, 양측이 엄청난 희생과 비용을 치른 ‘카프카스 전쟁사’는 『19세기 러시아 역사 교과서』(쉬콜라 8학년용) 전체 303쪽 중에 1쪽이 할애되어 있다. 물론 ‘체르케스인 이주’에 대한 언급은 없다. А.А. Данилов, Л.Г. Косулина, *История России, XIX век* 8 класс: учебник для общеобразоват. организаций (Москва, 2014), с.83.

해석을 반복하는 방어적 성격의 글들이 자주 발표된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검증된 사료에 기반한 연구가 이루어질 때 19세기 북 카프카스 역사의 핵심인 카프카스 전쟁 연구에 대한 학문적 진보는 물론 한 민족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투고일: 2016.4.3, 심사수정일: 2016.5.19, 게재확정일: 2016.5.23.]

주제어 : 카프카스 전쟁, 체르케스 문제, 북서카프카스, A.I. 바라틴스키, A.I. 에브도키모프, 무하쥐르스트보(무하지룬), 추방, 민족청소

<ABSTRACT>

The Caucasus war and the emigration problem of the Circassian nation in the 19th century

Shin, Dong-Hyug

The “Circassian question” is an important element defin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Caucasus war in the 19th century and contains the tragic history of an ethnic group. This article examines the “Circassian question” as a result of the Caucasus war of the 19th century, that is, studies the cause and process of large-scale Circassian migration into the Ottoman Empire from the Northwest Caucasus to 1864 after the Crimean War.

The interpretation and assessment about the 19th century the Caucasian war(the Circassian question) shows a clear different position between the central(mainly russkie scholars) and local scholars(mainly from the Caucasus regions). Russkie scholars recognize an inevitability, a harsh conquest policy in war process and Circassian’s big victim as it’s result. Also they assert that Tsar’s government had no goal of eliminating Circassians, there were important assignments of Tsar’s government policy that to keep Black Sea coast and to strengthen the new frontier of the empire in the Caucasus. Russkie scholars, emphasizing that as the most sensitive issue the cause and characteristic of Circassian migration are an outcome of Russia-Turkey-Britain interests surrounding the Northwest Caucasus, using sometimes ‘forced-muhajirun’ expressions they insist that Circassian’s migration was ‘muhajirun’. This stance doesn’t differ much from interpretation of Russian Empire period.

On the other hand, the first source cited in the text and like

the Caucasus region researchers did prove in their studies, after defeat in the Crimean War Tsar's colonial policy in the Northwest Caucasus was not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Caucasus(Chechnya and Dagestan). There is a need to give an eye to that Circassian migration policy was implemented, in the situation that Russia already seized the chance to victory in Caucasus war. And there was not the case of driving out 90% inhabitant of the conquest of areas outside Caucasus like Circassians anywhere. Deportation has occurred frequently in history of Russia, but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of driving an ethnic group out of country. But Tsar's government regarded Circassians as the potential risks of the northwest Caucasus region, it decided to get rid of them permanently rather than to manage the risk element. And the result was the large-scale Circassian migration into the Ottoman Empire. Therefore in spite that the Circassian migration has elements such as 'muhajirun', 'forced-muhajirun' and 'deportation' in fact, there are more distinctive things like 'the deportation of an ethnic unit' or 'an ethnic cleansing.'

Key words : Caucasus war, Circassian question, Northwest Caucasus, A.I. Bariatinskii, A.I. Evdokimov, Muhajirun, Deportation, Ethnic cleansing